

I. 주간 경제 동향

1. 경제 개관

- (실물경제) 생산, 소비 및 투자의 위축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환율하락과 내수침체로 물가는 안정세 시현
- (대외부문) 수출이 3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으나 수입이 급감하여 무역수지 흑자기조는 지속
- (외환시장) 달러 공급우위 지속으로 한때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로 급락하였지만, 정부 개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1,200원대로 급등하는 등 불안 양상을 나타냄
- (자금시장) 회사채 수익률이 12.30%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지표금리의 안정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현상의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는 상태

□ 실물경제

- (경기 하강 국면 지속) 특단의 경기부양책 없다면 L자형 장기 불황 가능성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
 - 6월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비해 0.9p 감소하여 경기가 여전히 하강국면에 있음이 확인됨
 -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3.5% 감소, 당분간 경기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산업 생산 감소폭 확대)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로 산업생산 감소폭 확대
 - 상반기중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비 9.7% 감소함. 1/4분기(-7.8%)보다 2/4분기(-11.7%)에 감소폭이 더욱 확대. 특히 6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비 13.3% 감소하여 54년 이후 최악의 상황
 - 특히 제조업의 생산 위축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며 제조업 내에서는 경공업의 생산 위축 폭이 크게 나타났음
 - 상반기중 제품출하는 전년동기비 10.5% 감소함. 역시 1/4분기(-7.5%)보다 2/4분기(-13.3%)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6월중 제품출하는 전년동기비 14.4%

줄어들어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짐

- 내수 부진에 따른 조업 단축 등의 요인으로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월 중 66.5%, 상반기 중 67.3%의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소비 위축 지속) 실업의 급증과 소득 감소, 그리고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민간 소비 심리가 급속히 위축

- 상반기 중 도소매 판매는 13.1%,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23.1% 감소
- 실업의 급증과 소득 감소, 그리고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민간 소비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어 내구용 소비재 출하는 30.9%, 비내구용 소비재 출하는 21.4% 감소함

- (설비·건설투자 모두 감소세 확대) 자금난과 부도위험 증가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가 극도로 위축,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우려

- 기계류내수출하, 기계류수입액, 설비투자, 국내 기계수주 모두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잠재성장률 저하가 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상반기중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비 41.4%, 국내기계수주는 41.9% 감소함. 특히 2/4분기에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 상반기중 국내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비 41.1%, 건축허가면적은 44.3% 감소함. 역시 2/4분기에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음

- (물가 안정세 지속) 환율 하락과 내수 침체로 물가상승 압력 요인이 해소

-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7.3% 상승, 상반기의 8.6%에 비해 크게 낮아짐
- 7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과 같은 수준. 특별소비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마와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반등한 때문임
- 생산자 물가는 3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7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2.3%로 전월(13.3%)에 비해 상승세 둔화

□ 대외부문

- (수출 3개월 연속 감소, 수입급감) 무역수지 흑자 기조 지속

- 7월의 수출이 전년 동월에 비해 13.7%나 감소한 102억 달러에 그침으로써 수출

-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동남아 및 일본 시장의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경기의 하강 움직임 등으로 전반적인 해외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무역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일본 엔화의 약세 기조로 대일 가격 경쟁력이 상반기에 비하여 하락하고 있기 때문임
 - 국내 경기침체 가속화로 7월중 수입은 전년 동월에 비해 43.7% 감소한 71억 달러에 그쳤음. 수출입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월간 단위로는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임
 -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 급감에 따라 7월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 기록. 매월 3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6개월째 지속되고 있음

□ 외환시장

- (널뛰기 환율) 원/달러 환율 급락과 정부의 간접개입에 따른 재상승

- 수입 급감으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반면,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고 기업의 해외자산 매각이나 합작에 따른 달러의 공급 물량은 풍부하여 공급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공급우위의 지속으로 원/달러 환율이 7월 28일 한때 1,185원까지 하락
-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용인한 IMF의 발언과 더불어 한국은행이 독일 코메르츠은행과 합작한 외환은행의 증자자금(2억 7천만 달러)을 직접 원화로 바꿔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재차 상승하게 됨
- 정부개입에 따른 환율의 추가상승 기대감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이 달러 매도를 억제하고 매수를 확대함으로써 큰폭의 반동이 나타나게 된 것임
- 이렇게 환율 변동폭이 큰 것은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이 7~8억 달러에 불과해 수급의 갭이 크지 않더라도 환율이 쉽게 등락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함
- 환율 등락폭이 클 경우 수출가격네고가 힘들고 원가계산에 혼선이 초래되는 등 안정적 경영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임

- (1,150원대가 하한선) 정부 개입이 가시화될 소지가 큰 만큼 1,15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전망

-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공급우위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그러나 IMF가 이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용인한 상태이고 환율 급락시 정부가 개입할 소지도 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당분간은 1,200원대를 전후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자금시장

- (지표 금리의 하락) 지표 금리의 하향 안정세 지속

- 금융당국이 은행신탁계정 및 투신사에 대해 5대 그룹의 CP 매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뒤 이들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 계획이 크게 증가하여, 금리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그러나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채 발행 물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리인하 의지와 신축적 통화공급으로 시중 유동성은 풍부한 상태여서, 회사채 수익률은 7월 31일 연중 최저치인 12.30%까지 하락함
- 콜금리는 10%대로 재진입하였고, 8월 1일 한때 9.50%까지 하락
- CP와 CD 금리 역시 12%대까지 하락
- 시중은행들의 실세정기예금 금리도 0.5~1.0%p 추가 인하됨

- (신용경색의 지속) 일반 기업과 가계의 자금난 지속

-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금융권과 5대 그룹에만 집중되고, 일반 기업이나 가계의 경우 여전히 자금난에 직면해있는 등 신용경색 상황의 해소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음

□ 주간 경제 지표

- 원/달러 환율 : 달러당 1,200원대 진입

달러화 공급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때 1,100원대로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외환시장 간접 개입에 따라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1,200원대로 재진입하였음. 게다가 최근의 엔저 여파도 있어 원화가치가 다시 하락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음. 8월 3일 현재 종가 기준으로 1,242.0원을 기록

- 주가 : 350선 돌파 못하고 하락 양상

금리 인하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으나 엔화 약세의 한파로 하락세 지속.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 가능성과 7월중 수출감소율이 13년만에 가장 높았다는 사실도 악재로 작용함. 특히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취하고 있어, 주가가 350선 돌파의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 8월 3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329.47포인트 기록

- 금리 : 11%대 진입

5대그룹이 회사채 발행 물량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량은행과 투신사에 집중되어 있는 시중유동성이 회사채 매입에 몰리면서 회사채 수익률은 연중 최저치인 11%대까지 떨어짐. 회사채 수익률이 11%대를 회복하기는 지난해 8월 11일 이후 1년만의 일. 8월 3일 현재 회사채 수익률은 11.90% 기록

- 엔/달러 환율 : 145엔대로 폭락

오부치 신임 총리에 대한 시장의 거부감이 강하고 미야자와 대장상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점 등이 엔화 약세를 부추켰음. 또 일본의 경기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목표 GDP 성장률(1.9%)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도 악재로 작용하였음. 8월 3일 현재 145.33엔 기록

(채 창 균 ckche@hri.co.kr ☎724-4031)